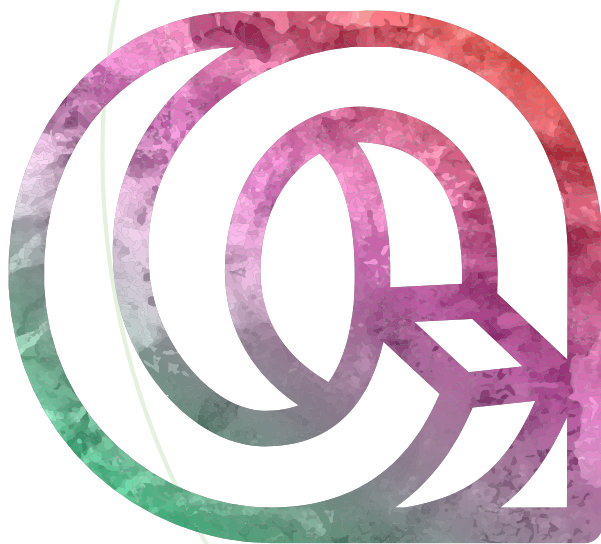


2017

PARTNERSHIP ON
투자 보고서



인사말

淡淡한 마음을 가집시다

淡淡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산 정주영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 사업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재단은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방식을 도입해 혁신리더에 유연한 재정 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등 비재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온 사업의 1기 혁신리더로 선정된 7개 기관 모두는 지난 3년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관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모금·마케팅, 회계·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자문은 조직역량 강화와 재정 안정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수감자 자녀, 북한 이탈, 학교밖, 교육 소외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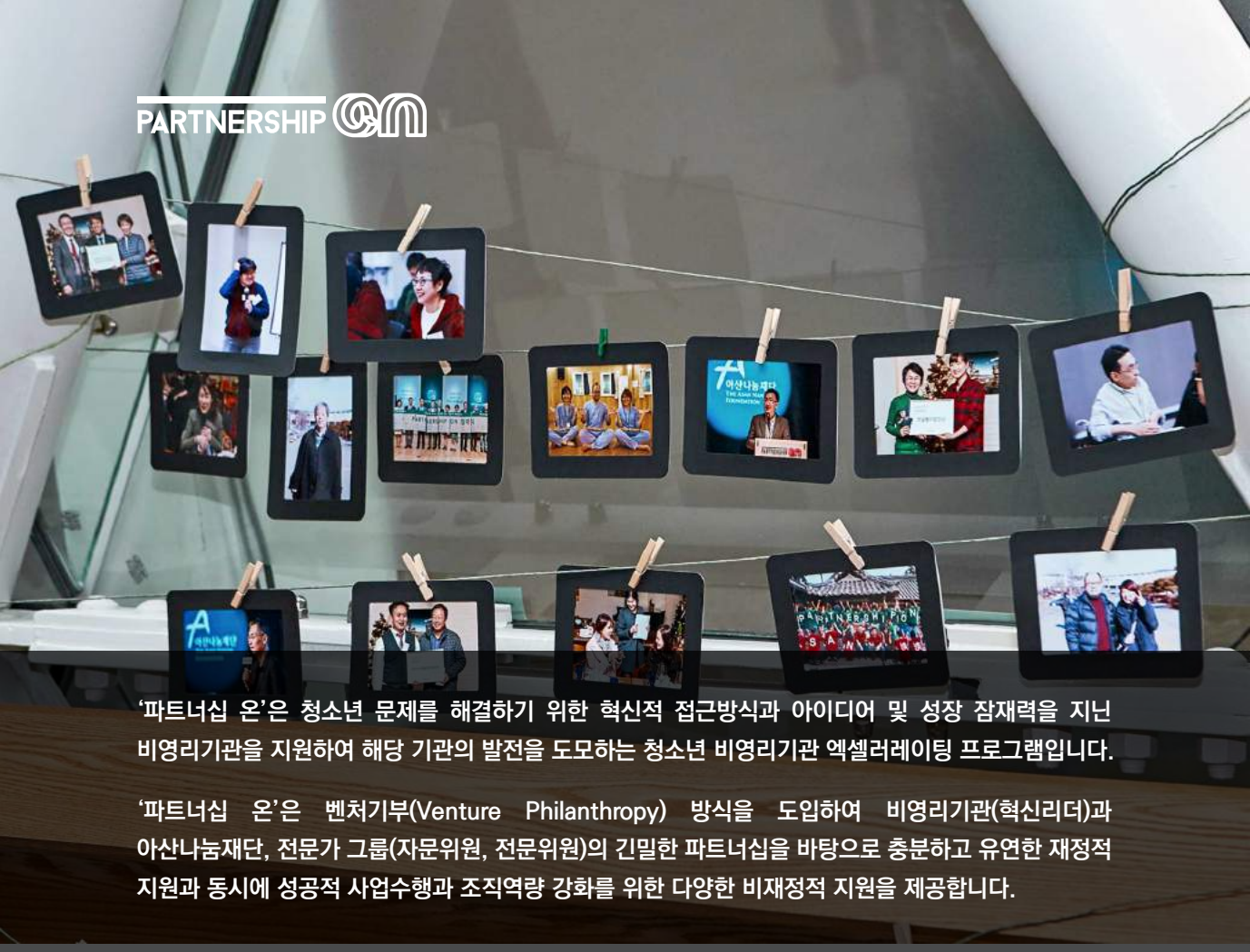
처음 서로를 마주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마주 보며 걸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이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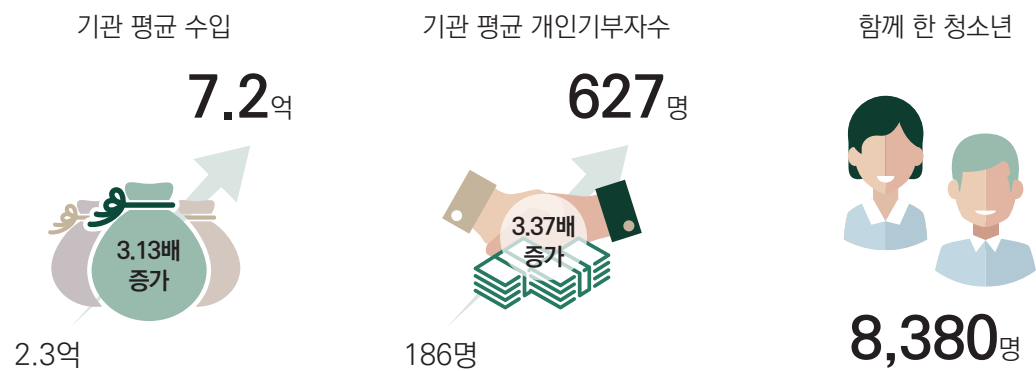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파트너십 온’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과 아이디어 및 성장 잠재력을 지닌 비영리기관을 지원하여 해당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청소년 비영리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십 온’은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도입하여 비영리기관(혁신리더)과 아산나눔재단, 전문가 그룹(자문위원, 전문위원)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충분하고 유연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성공적 사업수행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기 주요 성과




“ 조직의 책무성 부분이 강력해지고 조직역량 자체가 탄탄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몇몇 사람의 헌신이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미션·비전이 조직원들에게 내재화되었습니다.

3년간 파트너십 온의 투자

지원 기관 수 ▶


총 14개 기관
1기 7개기관
2기 3개기관
3기 4개기관



학교밖 · 비행	3
저소득 · 취약전반	4
장애	3
탈북	1
수감자자녀	1
따돌림 피해	1
성매매 피해	1

재정적 지원 ▶

총 56억 원




- ✓ 기관별 연간 최대 2억 원 (최대 3년 지원)
- ✓ 사업 기반 모든 예산 항목 지원

비재정적 지원 ▶

총 840시간

전문가 44기관 참여



자문	자문위원 통한 사업관련 전반 자문, 법률 및 회계세무
컨설팅	조직, 홍보, 모금마케팅, 브랜딩 등
교육	세무회계, 법률, 조직운영, 리더십, 기업가정신, 성과평가, 전략, 홍보모금 및 피칭 등

경영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홍보와 펀딩도 하고, 직원들의 훈련과정도 정규화하며, 사업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연구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명성진 이사장 (세상을 품은 아이들)



파트너십 온 1기 협약식





동넉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아동복지기관입니다. 특히 동넉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내 교육 돌봄서비스 방식을 전환하여 주기적인 계획을 통해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구조 변화를 시도하여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속적 돌봄의 구조를 개발합니다. 졸업생,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선순환공동체를 확립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한계를 넘는 돌봄서비스를 만들고 전파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고양
설립연도	2002년
성과 창출 지역	경기도 고양시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8명 (봉사자수 10명)
연간 예산	4.5억
담당자 소개	최성복 센터장 임재근 팀장

주요 성과



- 졸업생,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선순환 공동체 활동 확산**의 기초 마련
-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 청소년 육구 기반 **연속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플립러닝 중심 사업 재구조화**
- 사단법인 **해뜨는 자리 설립**을 통한 조직 안정화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보호/정서지원/교육/지역사회연계 초·중·고 연속지원 돌봄 프로그램
- 청소년 전용공간에 특화된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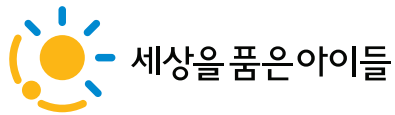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강제로 참여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배우다는 것은 좋았지만, 깊게 배우기보다는 맛보기 수준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자율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고 1 재학생

워킹맘이다보니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지 못하였었는데, 동넉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넉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4년차 이용 학부모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부천·인천지역의 위기청소년들에게 강력한 가족공동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에 기반한 통합적인 치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대안가정의 인격적 신뢰를 기반한 그룹홈 클러스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격적 신뢰 기반의 공동체 Home, 문화예술 몰입교육의 School, 청년창업가 양성을 통한 자립 Studio 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의 Youth Campus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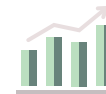
중범죄 청소년과 같이 '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래 중 센 놈(일진)의 긍정적인 변화가 또래 네트워크에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점을 감안, 1명의 변화가 100명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문제가 문제해결자로 변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범죄에서 떠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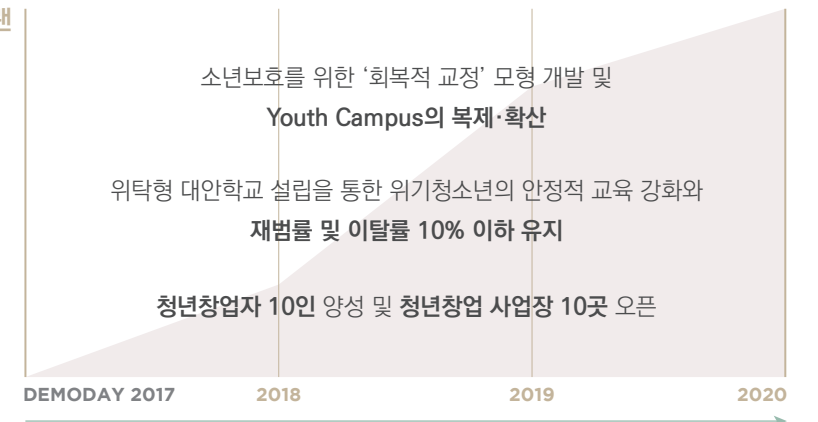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부천
설립연도	2014년
성과 창출 지역	부천·인천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16명 (봉사자수 15명)
연간 예산	8.5억
담당자 소개	명성진 이사장 임상엽 경영지원실장

주요 성과



- 3년 평균 세피아 보호 청소년 **재범률 15%** 이하 유지 (전국 평균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40% 대비)
- 청소년 재범률 및 이탈률 감소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멘토링** 확대
- 퇴소 이후 허기(분식카페), 파이브스토리(지역 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몽골국제교류센터(요식업 및 문화예술교육, 여행업) **창업사업장 오픈**을 통한 아이들의 자립 역량강화와 **Youth Campus 모델 안정화**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청소년 자립을 위한 몽골 여행업 사업장(테를지 국립공원 캠핑장) 구축
-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및 기숙형 위탁학교 공간 확보
-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교사 인건비 및 역량강화



랩을 한다는 걸 부모님에게 비밀로 했을 때, 옆에서 토닥거리 주시던 선생님들과 잘한다며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처음 출전한 M-net의 '고등래퍼'에서 초기에 아쉽게 떨어졌지만 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실용음악과에 진학했습니다.
 박고훈

세상을 품은아이들에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저와 비슷한 상처를 받았지만 '한번 더'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 소년시절 저와 함께 해주신 명성진 이사님의 한결같은 동행처럼,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제가 선생님이 되어 또 다른 아이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생활지도교사)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이 사회적 낙인과 보호 상실에 갇혀 있는 수감자 자녀와 그 가족들을 돕는 국내 최초의 단체입니다. 세움은 수감자 자녀를 위한 통합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법무부-개별교도소-세움) 모델을 통한 맞춤형 개별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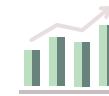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관심 받지 못한 수감자 자녀 및 가족을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식개선캠페인 등 옹호활동을 통해 수감자 자녀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수감자 자녀와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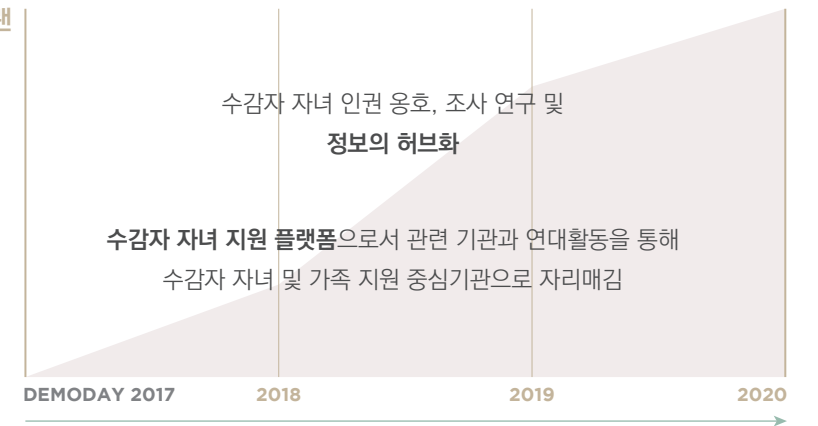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설립연도	2015년
성과 창출 지역	전국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5명 (봉사자수 56명)
연간 예산	5.8억
담당자 소개	이경림 대표 최윤주 사업팀장

주요 성과



-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국내최초 수감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수행, 전국 52개 교도소 전수조사
- 수감자 자녀 **330명** 지원, 수감자 자녀 및 가족 지원 **네트워크 155개** 구축
- 수감자 자녀 **지원 가이드북** 발간 등 통합지원모델 기초 구축
- 수감자 자녀 지원 위한 민·관 협력 MOU 체결 및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개소, 전국 교도소 확대 추진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전국 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구축, 수감자 자녀 가족접견 및 면회 지원·가족관계회복 심리상담 프로그램
- 수감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세움파트너 멘토링 프로그램**
- 수감자 자녀 양육자 등 주요이해관계자 가이드 및 교육 매뉴얼 제작



항상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듯이 저희 가족이 힘든 시간에 세움이랑 인연 맺고 여러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도 캠프 다녀와서 한층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수감자 가족 A님

아빠의 체포현장을 목격하고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아이가 세움에서 진행한 가족사랑캠프 참가이후 하루 종일 아빠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D구치소 교도관





자오나학교는 교육-양육-자립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양육미혼모와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국내 최초 생활공동체형 대안학교입니다.

자오나학교는 진로개발과 양육자교육을 제공하고, 독립실습주택 자오나하우스를 운영하여 졸업생들의 완전독립을 지원하며, Edu-Biz 모델에 따른 작업장형 카페 '엘브로페'를 통해 비즈니스 기반 자립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

청소년 양육미혼모와 아기, 그리고 학교밖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공동체 대안가족의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기숙형 대안학교 내에서 교육과 양육, 자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양육미혼모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각종 폭력으로 상처 받은 학교밖 위기청소년에게는 회복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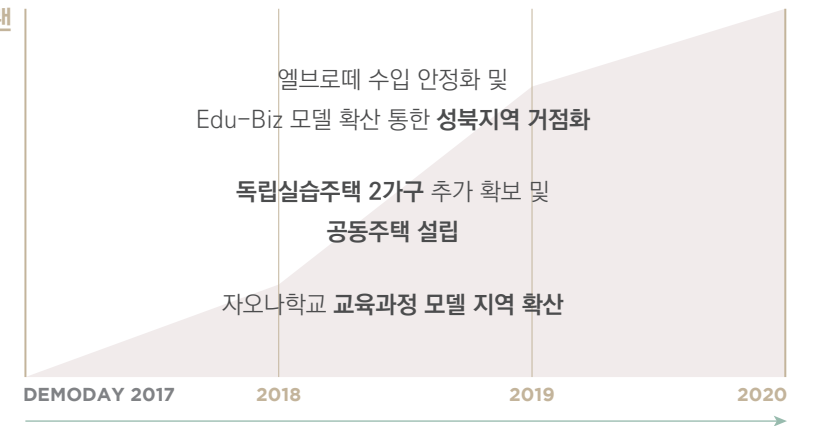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설립연도	2014년
성과 창출 지역	서울시
기관형태	재단법인
직원수	11명 (봉사자수 22명)
연간 예산	5.3억
담당자 소개	강명옥 교장 김정수 교감

주요 성과



- 청소년 양육모와 학교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진로역량 Incubating, 양육역량 Nurturing, 자립토대 Implementing)과 **통합지원 체계 마련**
- Edu-Biz 모델 구현을 위한 위기청소년 자립 카페 '**엘브로페**' **오픈**
- 졸업생 위한 독립실습주택 **자오나하우스 1호 마련**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교육 - 양육 - 자립의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별 전문 자원봉사자 및 협력기관 연계**
- **독립실습주택 및 공동주택 공간 확보**



제가 20살 되면 자오나에 기부도 하고 매달 후원도 할 거예요. 자오나에 살 때 너무 행복했어요. 수녀님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자오나에 와서 내 인생이 변한 거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졸업생, 현재 엘브로페 카페 근무

어린 엄마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공감됩니다.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고 돕고 싶습니다.

후원자





해솔직업사관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10대에서 20대까지의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미취학, 미취업으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직업교육 대안학교입니다. 기존의 기초학습 및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지원을 벗어나 진로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기계·기술, 서비스, 경제·경영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트랙을 마련하고 각각의 교육과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주요 대상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제 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대 효과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표적 자립 모델 학교로서 가족공동체, 꿈과 희망, 자기신뢰, 도전정신 4가지를 핵심가치로 합니다. 진로 및 취업 중심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과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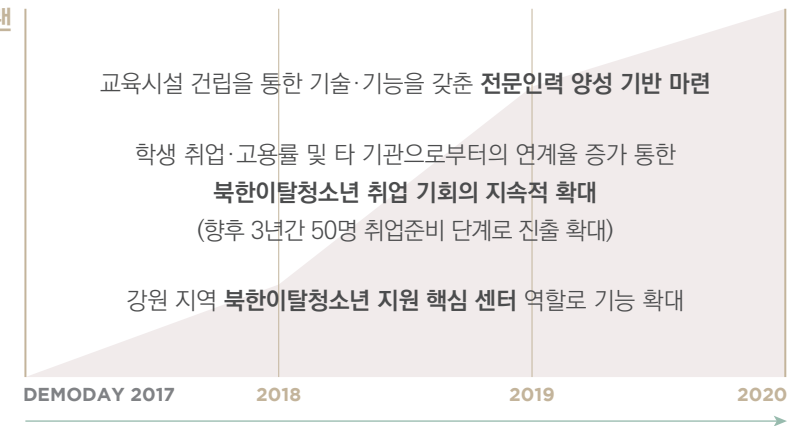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설립연도	2013년
성과 창출 지역	강원도 및 전국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10명 (봉사자수 18명)
연간 예산	4.5억
담당자 소개	김영우 이사장 김아영 교육매니저

주요 성과



- 북한이탈청소년 **맞춤형 자립 교육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직업 교육의 대표 모델로 인지도 확립
- 3년 내 전문자격증 15명 33개 획득, 검정고시 8명 합격, 취업성공 10명 및 인턴십 2명, 취업자 평균소득 월266만원 등 **경제적 자립도 향상**
- 지역 자원 활용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거점화 위한 부지 확보, 교육시설 건립 준비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학교 교사 신축** (교실·식당·도서관 등 기부자 명의로 별도 공간 마련 가능)
- **과거치유 - 현재강화 - 미래설계 맞춤형 자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청소년 학습 및 생활적응 장학금**



아직은 인턴과정이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일도 서투르지만 해솔의 첫 취업 성공자로서 꿈을 이룰 수 있어 요즘 너무 행복해요. 요리사 희망, 『메이필드호텔』 인턴십 중, 정직원 전환 예정

기계·기술 공무원이 되어 저처럼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 제2, 제3의 해솔을 개교하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돕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춘천) 2년 과정(컴퓨터응용기계과) 재학 중





행복한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치유적 개입을 통해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돕고 행복한 교실문화 형성과 건강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쌈' 사업은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팀의 학교 현장 투입 치료 프로그램으로, 가해자 처벌 방식이 아닌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따돌림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주요 대상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등 주변학생을 포함한 학급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부모·교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대 효과

학급 역동을 파악하고 학급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여, 징벌이 아닌 치유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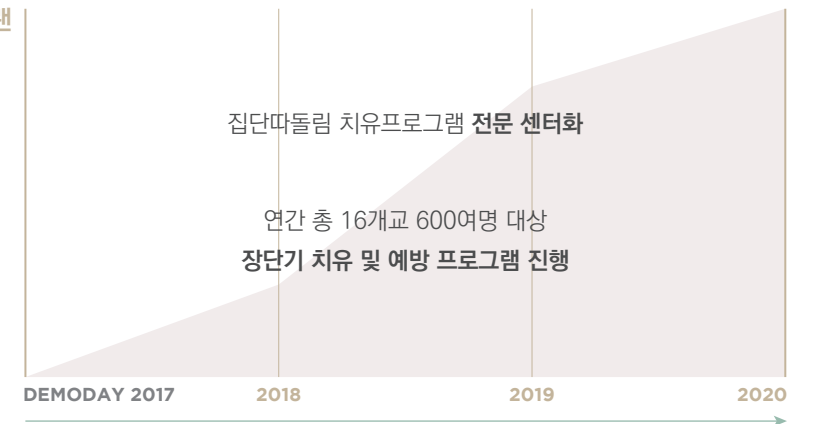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설립연도	2014년
성과 창출 지역	서울시
기관형태	사단법인
직원수	7명 (봉사자수 20명)
연간 예산	4억
담당자 소개	이정국 이사장 문현주 실장

주요 성과



- 국내 최초 다학제적 집단 따돌림 치료 서비스 수행
- 따돌림 가·피해자 문제 행동 감소와 방어행동 및 학급공동체 의식 향상
- 3년간 총 35학급 808명 학급 치유 프로그램 참여, 2017년 250명 예방프로그램 참여
- 중랑구·노원구 중심 공공 및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 공동체적 예방체계 마련

성장 플랜 (3년)



투자 필요 부분



- 초등학교 학급대상 집단따돌림 예방·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마음쌈' 제도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기관 네트워크



친구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학교 공부가 즐겁고 행복해요. 학교가 무섭지 않고 가기 싫지 않아졌어요.

중랑구 A초등학교 학생

마음쌈 프로그램 후에 아이들 훈계와 통솔이 쉬워졌어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뒤에서 돕는 친구들이 생기고 친구들이 좀 더 서슴없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중랑구 B초등학교 교사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일상 속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예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교육,
멘토링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비영리
분야에 혁신을 전파할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VI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MIS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HOMEPAGE

www.asan-nanum.org

E-MAIL

info@asan-nanum.org

세상을 바꾸는
淡淡한 도전,
아산이 함께합니다

